

바다의 날 맞아 민관이 손잡고 포항 호미곶 바닷속 정화 나서

-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새우말' 서식지 보호 위해 민간 전문 다이버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제31회 '바다의 날' 주간을 맞아 5월 28일(목)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포항시 호미곶 주변 해역에서 '민관 협력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은 해양보호구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기존의 기계식 수거 방식이 아닌 해양생태계 보호 등 환경적 가치를 우선하는 수작업 수거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화장소인 포항 호미곶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주요 서식지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 (게바다말) 벼와 비슷한 외형을 가진 여러해살이 해조류로 한국, 일본해역에만 서식(2007년 지정)

** (새우말) 침수성 현화식물(꽃이 피는 식물)로, 꽃의 생김새가 새우와 비슷함(2007년 지정)

이날 정화활동에는 민간환경단체인 '오션캠퍼스' 소속 전문 다이버 15명이 참여하여 수중에 방치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 침적 폐기물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경북 울진군 나곡리에서 실시된 1차 정화활동에서는 전문 다이버 15명이 투입되어 폐어구 약 200kg을 수거한 바 있다.

아울러, 수중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어드밴스드(Advanced) 자격* 이상을 갖춘 숙련된 다이버를 투입하고, 4인당 1인의 안전강사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기본 잠수교육을 이수한 뒤 수심·환경 적응 등 심화 잠수가 가능한 중급 수준의 자격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다의 날 주간을 맞아 해양보호생물의 터전인 호미곶에서 진행되는 이번 활동이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안용운 (051-773-5300)
		담당자	사무관	김덕영 (051-773-5307)